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The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전남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진희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경신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
Jin Hee kim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yeong Shin kim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find out general trends of the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ommunication variables, and to analyze correlations between stress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efficien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0 couples in Kwang-ju.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

- 1) The level of wives' stress recognition was higher than husbands' and the level of interspouse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median.
- 2) Communication efficien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number of children, the duration of marriage in wives.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hours they spend in daily communication, the types of communication, the satisfaction of communication in both groups of husbands and wives.
- 3) Marital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in couples.

I. 서론

부부관계는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관계로서, 특히 인간 수명의 연장과 자녀수 감소에 따라 부부만이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는 상호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나, 갈등상황일 때는 가장 파괴적이며 고통스런 관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어떠한 대인관계보다 친밀한 관계가 기대되어지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서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부 의사소통이란 서로 자기자신을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이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다(유주희, 1993). 따라서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이해하며 동등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채 가족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현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족원은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족원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고 때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야기시키며 가족원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부가 각각 자신의 욕구, 가치, 태도, 믿음에 따라 상황과 사실을 다르게 인지함으로써 그 차이가 존재하므로 더욱 심각한 갈등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Menaghan, 1983).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요인이 꾸준히 탐색되어져 왔는데, 선행연구들(이정우, 장병욱, 1987; 김용미, 1991)에 의하면 특히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의 정도와 스트레스 정도는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부갈등을 발생시키며, 결혼관계 및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개발되고 응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부부 스트레스나 의사소통 효율성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대화변인들이 분석되어져 왔으나(김경아·이정우, 1990; 남유리, 1989; 박난희, 1987; 조희선, 1991) 일관되고 통합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에 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대부분 연구들이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남편과 부인을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많아,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부부상호간의 스트레스 지각차이를 알고 의사소통의 상호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및 상호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부부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1)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부부간 차이는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대화변인에 따라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3)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또한 부부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가 서로 자기자신을 상대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으로(유주희, 1993), 부부사이에 상징적인 매개체

들을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의사소통 효율성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사이에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징적 교류과정 중에서 듣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목소리의 억양,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표현능력 등의 제반 관계요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강희정, 1995).

따라서 부부의 의사소통도 다른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감정을 적절히 전달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친밀한 인간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Bienvenu(1970)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인 것과 비효과적인 것으로 구분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요소로 듣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목소리의 억양, 자신의 표현능력을 들었고, 비효과적 의사소통 요소로 잔소리,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 정직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자신의 성격, 태도,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Olson(1983)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숙련된 행동이며 학습되는 것으로 부부 모두의 기술 수준에 의존되는데, 한쪽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의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면, 다른 한쪽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은 붕괴된다고 하였다. 부부의 의사소통 장애요인으로 Rice(1979)는 물리적 거리감,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요인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정연(1996)은 명령, 위협, 설교, 충고, 논쟁, 비난, 조소, 분석, 동정, 심문, 포기 등이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면, 우선 성차를 보면 부인은 긍정적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나, 남편은 부정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 남편과 부인의 경우 부인은 남편들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며, 남편들은 부인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

는 경향이 많고, 부인은 남편의 메시지에 더 민감하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한 응답을 한다. 그리고 남편들은 부인보다 중립적 메시지를 더 많이 사용하며, 부인은 남편보다 정서적 호소와 위협을 더 많이 사용한다(Strong과 DeVault, 1992).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여러 연구(송말희, 1986; 박혜경, 1992)에서 부인의 연령이 낮은 경우 개방적 의사소통형으로 의견일치도가 높아 효율성이 높다고 한 반면, 이정순(1991), 이정우·안동선(1983)의 연구들은 연령과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awkins(1980)는 학력이 높을수록 표현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송성자(1985)는 남편과 부인 모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회생지향형으로 의사소통 한다고 하였다. 원효종(1984)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부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더욱 낮아진다고 하였다. 도미향(1990)은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친숙형이 가장 많고 무직자가 차단형이 가장 많다고 하였으나, 박민숙(1984), 박혜경(1992)은 남편의 직업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특히 Hawkins(1980)는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내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효종(1984)은 소득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경숙(1982)은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자연스러운 의견교환의 경향을 보이며, 핵가족에서는 부인의 의사반영률이 높다고 하였고, 박경자(1981)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창숙(1988)은 확대가족, 핵가족 등 가족형태에서는 부인의 경우만 회생형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결혼년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이정우·안동선(1983)은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안정된다고 하였으며, 원효종(1984)도 결혼년수에 따라 의사소통 양식과 정도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정순(1991)은 결혼

지속년수와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수 역시 부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정우·안동선(1983)은 0-1명을 둔 가정에서 부부 의사소통, 상호작용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하였으나, 송말희(1986)는 자녀가 없는 경우 가장 의사소통 이해도가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낮다고 하였다. 박혜경(1992)은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수와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화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을 보면,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부인의 경우 2-3시간일 때, 남편의 경우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화형태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잘 하는 경우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강희정, 1995; 홍신례, 1987). 홍신례(1987)는 대화시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강희정(1995)은 저녁식사이후에 의사소통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의사소통 효율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남편과 부인을 쌍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희정(1995)의 경우 남편의 경우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의사소통 효율성 정도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화시간, 대화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 연령, 학력,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결혼형태, 대화시간, 대화형태, 대화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대화변인을 중심으로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정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2.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란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해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특정적인 반응으로서(Selye, 1956),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Fleming 등, 1984).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은 직접적으로 부정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여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Lazarus와 Folkman, 1984). 즉 스트레스 과정중에서도 스트레스 인지는 개인의 반응 정도를 유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 인지에 관련된 변인으로서 먼저 성차가 있는데 Dohrewend은 남성보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다는 반면 Uhlenhuth, Lipman, Balter와 Stren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최동숙, 1989에서 재인용). Bernard(1976)는 남성만큼 여성도 여성역할의 문제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사노동 분담의 비전통적인 성역할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 증상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동숙(1989)의 연구에서도 남편보다 부인이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에 관련된 변인들을 보면, 김경아·이정우(199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광주(198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대는 남편의 음주 및 늦은 귀가시간, 경제적인 곤란, 부부간의 생활에서, 30대는 경제적인 곤란, 자녀양육 태도, 남편의 직업전환 및 사업실패에서, 40대와 50대는 자녀양육 태도, 경제적인 곤란, 남편의 음주 및 늦은 귀가시간 등의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며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배종렬(1985), 이정우·장병옥(1987), 남유리(1989)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심리적 손상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심리적 손상이 적다고 하였다. 최동숙(1989), 이정우(1992)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일수록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주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자원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덕경·이정우(1992)는 전반적으로 월평균 수입이 높아질수록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별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으며(김경아, 1990),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가 가족형태 자체보다는 가족 상호간의 우호도나 협동성 같은 관계망에 더 좌우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년수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결혼년수가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김화자, 1991 ; 이정우·장병옥, 1986 ; 김미현 1993).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녀가 많을수록,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박순희 1990 ; 최동숙, 1989 ; 이정우·장병옥, 1986 ; 김명자, 1991).

대화 시간, 대화형태 등 대화에 관련된 변인도 스트레스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김오남(1994)은 대화시간, 대화만족도, 대화시간 부족 등이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윤상희(1995)의 연구에서는 대화만족도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차이를 보였는데, 대화에 만족할수록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장병옥(1987)의 연구에서는 서로 대화를 잘 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화형태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을 쌍으로 본 연구에서는 윤상희(1995)의 경우 남편에게 있어서는 학력, 직업, 대화만족도의 변인들이 스트레스 인지 차이를 나타내었고, 부인에서는 학력, 직업에서 스트레스 인지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대화변인들을 중심으로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3.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

가족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자원으로, 이정우·장병옥(1987)은 차단적·억제적 의사소통유형은 의사소통 효율성의 정도가 낮은 반면, 개방형인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김경아·이정우(1990)의 연구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ford, Hahlweg, Dunne(1990)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부부의 디스트레스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cCubbin(1980)의 연구에서도 가족 스트레스 상황에서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조건들이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Bancorn과 Adams(1980), Noller(1984), Schaap(198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의 정도가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대화변인을 중심으로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이혼, 별거, 사별하지 않고 결혼상태에 있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중·고·대학교를 선정, 학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게 하였다. 300쌍의 부부(600부)를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나 이중 239쌍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남편이나 부인 중 한쪽이 하지 않은 19쌍을 제외한 220쌍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남편의 경우 연령은 40대가 4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이상이 44.5%, 44.1%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관리직 41.8%, 자영업 26.4%, 기술직 10.9%, 노동자·피고용자 8.6%, 무직 7.7%, 전문직 4.5%로 나타났다. 부인은 30대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이상이 50.5%, 25.0%으로, 직업

은 가정주부가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00만원-199만원 53.2%, 200만원-299만원 28.6%, 300만원이상 12.7%, 100만원미만 5.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83.6%, 확대가족 16.4%를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2명 72.7%로 나타났으며, 결혼년수는 10년 이하 31.8%, 11년-15년 27.7%, 20년 이상 22.3%, 16년-20년 18.2%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대화변인

본 연구에서는 변인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가족형태, 자녀수, 결혼년수 등을 설정하였고, 대화변인은 대화시간, 대화 시기, 대화 형태, 대화만족도로 구성하였다.

2) 의사소통 효율성

의사소통의 효율성 척도는 부부간에 듣고 서로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의 특성, 양상, 방식 등을 반영하는 4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판별능력(discriminatory power)이 높았던 항목 20문항을 우리 나라의 부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긍정적 문항은 '언제나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주로 의사소통상의 이해도 및 수용도, 용이성, 개방성, 정직성, 듣는 태도, 잔소리정도, 목소리 억양, 표현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트레스 인지수준

스트레스 인지수준 척도는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와 이에 기초한 최동숙(1989)의 생활사건척도, 유주연(1995)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척도를 참고로 하여 부부관련문제(7문항), 자녀관련문제(7문항), 가정경제문제(7문항), 건강관련문제(4문항), 친척관련문제(3문항), 자신역할문제(3문항), 직업관련문제(3문항)

로 총 3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0~136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는데, 의사소통 효율성의 경우 남편은 .828, 부인은 .831,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남편은 .915, 부인은 .917로 각각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사용한 자료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Pearson's r)를 이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

1)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본 연구의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의사소통 효율성의 점수는 20점~80점의 범위로, 평균점수가 남편은 56.30, 부인은 56.75로 나타나 의사소통에 있어 중간 수준(50점)을 약간 상회하는 효율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을 비교해 볼때 남편보다 부인이 약간 효율성 점수가 높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남편과 부인의 집단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희정(199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표 1>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남편	부인
평균	56.30	56.75
표준편차	8.30	8.48
t값	0.93	

수 있다.

2)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하위영역에 대해 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136점의 범위를 가지는데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평균점수를 보면 남편은 52.20, 부인은 57.03으로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중간점수 68점 이하의 점수로 비교적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을 비교해 볼 때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동숙(198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자녀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친척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에 대해 남편과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부인이 자녀, 경제, 인척, 역할 등의 측면에서

남편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고 부부, 건강, 직업 등의 측면에서는 남편과 부인집단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대화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대화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인의 경우 자녀수, 결혼년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수가 적은 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년수에서는 10년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의사소통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16-20년인 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와 결혼년수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이정우·안동선, 1983; 송말희, 1986; 강희정, 1995). 따라서 결혼년수가 증가할수록 의사소통 효율성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 확대기에 해당하는 결혼년수 16-20년에서 효율성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 시기의 부부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화시간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은 남편과 부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느 정도 대화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부인 모두 30분미만 대화하는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형태의 경우에도 남편, 부인 모두 양방개방형이 가장 높은 의사소통 효율성을, 양방차단형이 가장 낮은 의사소통 효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부부 한쪽만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솔직하고 적극적인 상호적 의사표현을 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화만족도의 경우에도 남편과 부인 모두 효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만족'한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을

<표 2>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영역별 평균과 차이

영역	집단	M	SD	t값
부부관련문제 (0-28)	남편	10.11	7.17	-1.94
	부인	10.87	6.32	
자녀관련문제 (0-28)	남편	11.44	7.65	-4.09***
	부인	13.04	7.64	
가정경제문제 (0-28)	남편	11.66	7.11	-2.16*
	부인	12.67	7.17	
건강관련문제 (0-16)	남편	8.08	5.75	-2.21
	부인	8.15	5.77	
친척관련문제 (0-12)	남편	3.33	3.40	-2.86**
	부인	3.94	3.56	
자신역할문제 (0-12)	남편	4.38	3.63	-2.50*
	부인	5.05	3.82	
직업관련문제 (0-12)	남편	3.18	3.06	-.760
	부인	3.32	3.38	
전체인지수준 (0-136)	남편	52.20	28.26	-3.23***
	부인	57.03	29.20	

괄호 안은 점수범위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대화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

구분		남편				부인			
		M	SD	D	F	M	SD	D	F
자녀수	1-2명	57.01	8.66			57.71	8.60	a	3.83*
	3-4명	54.03	6.97			54.11	7.55	a	
	4명이상	56.87	6.77			54.87	8.55	a	
결혼년수	10년이하	57.97	8.61			58.72	8.85	a	2.72*
	11-15년	55.13	8.44			56.59	7.82	ab	
	16-20년	54.80	8.85			54.05	9.56	b	
	20년이상	56.61	6.86			56.36	7.24	ab	
대화시간	30분미만	52.10	8.10	b	6.50***	52.95	9.16	b	3.53**
	30분-1시간미만	56.05	7.38	a		57.48	7.98	a	
	1-2시간미만	60.13	8.71	a		58.19	7.38	a	
	2-3시간미만	58.66	7.47	a		59.65	8.91	a	
	3시간이상	56.33	8.18	a		56.30	8.70	ab	
대화형태	양방개방형	58.43	7.64	a	12.83***	58.01	7.86	a	5.41**
	남편개방형	51.30	7.86	bc		53.60	8.57	ab	
	부인차단형								
	부인개방형	53.79	7.87	ab		55.14	9.50	ab	
	남편차단형								
	양방차단형	47.64	7.51	c		50.14	9.96	b	
대화만족	만족	59.14	8.25	a	17.16***	61.08	7.84	a	33.17***
	보통	54.25	7.02	b		55.39	6.82	b	
	불만족	48.25	8.92	c		47.65	8.86	c	

* $p < .05$, ** $p < .01$, *** $p < .001$

수록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편과 부인 모두 대화변인이 의사소통 효율성에 가장 차이를 많이 나타내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대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대화변인에 따라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남편은 연령, 소득수준, 자녀수, 결혼년수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부인은 연령, 교육정도, 자녀수, 결혼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 부인 모두 연령이

50세 이상인 집단에서, 자녀수가 3-4명인 경우, 결혼년수가 20년 이상인 집단이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이, 부인의 경우 학력이 스트레스 인지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변인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남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부인은 대화시간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대화시간이 2-3시간인 집단이 가장 높게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대화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잔소리등 부정적인 대화방법이 차지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상승시킬 수 있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대화변인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수준

구분		남편				부인			
		M	SD	D	F	M	SD	D	F
연령	20세-29세	47.50	24.18	b	6.68***	58.00	29.60	b	8.53***
	30세-39세	44.94	28.58	b					
	40세-49세	50.84	27.49	ab					
	50세이상	68.04	24.43	a					
교육정도	중졸이하	61.80	27.02		67.37	29.16	a	4.68*	
	고졸	51.52	27.88		53.19	19.38	b		
	대졸이상	50.43	28.74		54.63	26.89	b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9.83	20.25	a	4.56**	59.38	27.93		
	100-199만원	58.29	29.05	a		29.98	29.08		
	200-299만원	42.63	24.51	a		47.90	23.06		
	300만원이상	49.63	30.30	a		60.83	36.49		
자녀수	1-2명	46.54	26.70	b	13.45***	52.26	27.26	a	8.41***
	3-4명	68.40	26.92	a		70.19	32.51	a	
	4명이상	60.25	27.45	ab		67.00	13.40	a	
결혼년수	10년이하	44.24	29.09	b	8.90***	46.51	27.34	c	9.96***
	11-15년	45.84	26.93	b		52.60	23.60	bc	
	16-20년	57.20	25.23	a		62.65	28.37	ab	
	20년이상	67.42	24.53	a		73.00	31.52	a	
대화시간	30분미만	53.56	27.19		58.97	26.69	bc	3.34*	
	30분-1시간미만	50.20	26.98		54.62	28.87	bc		
	1-2시간미만	45.97	27.16		48.17	23.62	c		
	2-3시간미만	60.71	35.12		73.90	39.97	a		
	3시간이상	62.09	27.38		65.10	27.57	ab		

* p < .05, ** p < .01, *** p < .001

음을 알 수 있다.

3.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상관관계

1)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과의 상관관계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그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1, 2〉에서와 같이 보면 남편은 $r = -.319$, 부인은 $r = -.383$ 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 부인 모두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인지하

는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김경아·이정우(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남편보다 부인의 상관계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 부인의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이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더욱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남편은 자신역할문제, 부부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친척관련문제, 자녀관련문제, 직업관련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인은 부부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 가정경제문제, 자녀관련문제, 친척관련문제, 직업관련문제, 건강관련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표 5-1〉 남편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남편	부부 관련 문제	자녀 관련 문제	가정 경제 문제	건강 관련 문제	친척 관련 문제	자신 역할 문제	직업 관련 문제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
의사소통 효율성	-.404***	-.163*	-.246***	-.065	-.240***	-.415**	-.134*	-.319***

〈표 5-2〉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부인	부부 관련 문제	자녀 관련 문제	가정 경제 문제	건강 관련 문제	친척 관련 문제	자신 역할 문제	직업 관련 문제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
의사소통 효율성	-.402***	-.303***	-.351***	-.148*	-.289***	-.372***	-.150*	-.383***

*p < .05, **p < .01,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남편은 자신 역할문제에 관련된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상관이 가장 높고, 부인은 부부문제가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 자신의 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의사소통 효율성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부인의 경우에는 부부문제 스트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2)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과의 상관관계

부부 상호간의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편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부인의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343의 상관을 보이고,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남편의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347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부부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상대 배우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관련문제, 친척관련문제, 직업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자녀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 건강관련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남편의 스트레스 영역별

인지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친척관련문제, 부부관련문제, 자녀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직업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인은 남편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수록 부부간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받는 반면, 남편은 부인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 부부간의 관계 뿐 아니라 친가나 처가를 고려한 주변 가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표 5-1, 2〉와 비교해 볼 때 남편보다는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부부 스트레스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남편의 경우 자신보다는 부인의 스트레스에 의사소통 효율성이 더 관련됨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성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표 6〉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인지수준과의 상관관계

남편	부부 관련 문제	자녀 관련 문제	가정 경제 문제	건강 관련 문제	직업 관련 문제	친척 관련 문제	자신 역할 문제	전체 인지 수준	의사 소통 효율성
부인									
부부관련 문제	.635 ***	.382 ***	.429 ***	.297 ***	.442 ***	.446 ***	.400 ***	.587 ***	-.352 ***
자녀관련 문제	.355 ***	.714 ***	.313 ***	.197 **	.331 ***	.355 ***	.374 ***	.529 ***	-.254 ***
가정경제 문제	.427 ***	.508 ***	.572 ***	.374 ***	.304 ***	.328 ***	.412 ***	.590 ***	-.265 ***
건강관련 문제	.324 ***	.405 ***	.403 ***	.604 ***	.243 ***	.250 ***	.269 ***	.507 ***	-.181 **
직업관련 문제	.421 ***	.424 ***	.370 ***	.300 ***	.585 ***	.327 ***	.362 ***	.528 ***	-.269 ***
친척관련 문제	.437 ***	.445 ***	.364 ***	.186 **	.323 ***	.432 ***	.337 ***	.492 ***	-.335 ***
자신역할 문제	.404 ***	.496 ***	.368 ***	.307 ***	.368 ***	.339 ***	.617 ***	.547 ***	-.197 **
전체인지 수준	.555 ***	.642 ***	.530 ***	.424 ***	.461 ***	.455 ***	.499 ***	.703 ***	-.343 ***
의사소통 효율성	-.381 ***	-.277 ***	-.276 ***	-.007	-.263 ***	-.416 ***	-.174 **	-.347 ***	.628 ***

* p < .05, ** p < .01, *** p < .001

비교적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친척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에 대해 남편과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게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인의 경우 자녀수, 결혼년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수가 적은 집단과 결혼년수가 10년 이하 집단이 가장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변인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은 어느 정도 대화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부인 모두 30분 미만 대화하는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형태의 경우 남편, 부인 모두 양방개방형인 경우와 부부의 대화에서 만족한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있어서는 남편, 부인 모두 연령이 50세 이상인 집단에서, 자녀수가 3-4명인 경우, 결혼년수가 20년 이상인 집단이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변인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남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부인의 경우 대화시간이 2-3시간인 집단이 가장 높게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 부인 모두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은 자신역할문제, 부부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친척관련문제, 자녀관련문제, 직업관련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인은 부

부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 가정경제문제 자녀관련문제, 친척관련문제, 직업관련문제, 건강관련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남편은 자신역할문제에 관련된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상관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상호 밀접히 관련되고 있고 이를 영역별로 볼 때 남편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부부관련문제, 친척관련문제, 직업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자녀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 건강관련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남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친척관련문제, 부부관련문제, 자녀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직업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인은 남편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수록 부부간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받는 반면, 남편은 부인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 부부간의 관계 뿐 아니라 친가나 처가를 고려한 주변 가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보다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 정도가 부부 모두의 스트레스 인지와 더욱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있어 부인이 남편에 비해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가정환경 내에서도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영역별로 부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 이러한 부부간 인지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부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인의 의사소통 효율성 정도는 부부 모두의 스트레스 인지에 더욱 중요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부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부인을

위한 의사소통 효율성 교육 등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의사소통 효율성도 자신보다는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에 더 관련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부부 공동의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상호이해와 긍정적 영향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결혼년수에 따라 의사소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의 특성에 맞추어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대화의 양보다는 효율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 인지등을 측정함에 있어 보다 타당성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우리문화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와 스트레스 인지수준 뿐 아니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1) 강희정(1995). 도시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신·박은주(1996). 효율적인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전남대 가정과학연구, 111-122.
- 3) 김경아·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7.
- 4) 김미현(1993). 주부의 가정 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11-124.
- 5) 김정옥(1987).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

- 족도와와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정옥(1996).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21-33.
- 7) 김화자(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8)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도미향(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 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5.
- 10) 박난희(1987).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 영역과 그 적응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민숙(1984).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송말희(1986).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옥선화·정민자(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79-92.
- 15) 원효종(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유주희(1993). 도시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윤상희(1995). 맞벌이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식, 디스트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요인과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90.
- 20) 이정연(1996). 부부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광주여성의 전화 제3차 워크샵, 49-56.
- 21) 이정우·안동선(1983).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1). 아세아 여성연구 제22집. 숙명여자대학교.
- 22) 이정우·장병옥(1987). 기혼 여성의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아세아 연구 26, 215-241.
- 23) 이창숙(1988). 한국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5.
- 24) 최덕경·이정우(199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15-130.
- 25)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26) Bancom, Donald H., and Alexander N. Adams(1980). "Assessing Communication in Marital Interaction" pp 139-182 ink. Daniel O' Leary(ed),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 Hillsdale, J: Lawrence Erlbaum.
- 27) Benard, J.(1976). Stress and the Family. *Journal of Home Economics*, 68(5), 6-10.
- 28) Bienvenu, Sr. M. 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6-31.
- 29) Boss, P. G.(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an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30) Deacon, R. E. & Firebaugh, F. M.(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Inc.
- 31) Gross, I. H., Crnda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32) Halford, W. K.(1990). The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Marital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87-500.
- 33) Hawkins, J.A. & Ray, D. W.(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3), 479-490.
- 34) Hawkins, Weinberg & Ray(1980). Spouses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85-593.
- 35) Ivancevich, J. M. & Matterson, M. T.(1980). Stress and Work : A Manager Perspectives New York : Scott, Folkman and Company.
- 36)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 Publishing Co.
- 37) McCubbin, H. I., Joy, C.B., Cauble, A. E., Comesu, J. K., Patterson, J. M. & Needle, R. H.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55-872.
- 38) McCubbin, H. I. (1988). Family Stress, Resource and Family Type, *Family relations*, 37(3).
- 39) Noller, Patricia(1984). Nonverb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eraction, Oxford, England, and New York: Pergamon Press.
- 40) Noller, P. & M. A. Fitzpatrick(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41) Olson, Russell & Sprenkle(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 42) Rithie, L. D. & Fitzpatrick, M. A.(199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erpersonal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8(4), 548-565.
- 43) Schaap, Cas(1984). A comparison of the interaction of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couple in a laboratory situation: Literature survey methodological issue, and empirical investigation, pp133-158 in Kurt Hahlweg and Neil S. Jacobsow(eds.), *Marital interaction: Analysis and Modific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44) Schroeder, D. H. & Costa, P. T. (1984). Influence of Life Event Stress on Physical Ill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53-863.
- 45) Selye, H.(1956).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J. B. Lippicott.